



“삼독 버리고 수행하면 잘 풀릴 것”

■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동광 스님

我無汝無 一切無(아무무여 일체무)
虛空何處 我尋爲(저공하처 아진위)
生命尊貴 佛眞理(생명존귀 불진리)
我心何處 尋有覺(아심하처 욱유각)
貪嗔癡毒 皆棄捨(탐진치독 개기사)
身心修行 每事成(신심수행 매사성)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 어느 곳에서 나를 찾을 것인가. 생명을 가장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인데 내 마음에서 깨달아라. 과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다버리고 몸과 마음을 수행하면 모든 일이 풀려나갈 것이다.

“종교 아닌 진리로서의 불교 알아라”

■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 회장 회암 스님

불교란 특정한 가르침이 아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되는 그런 종류의 가르침이 아닌 진리 그 자체다. 참으로 불교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종교로서의 불교가 아닌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서의 불교를 알아야만 오늘의 부처님 탄신을 알게 되느니라.



“생사 진로 벗어나면 모두 즐거워”

■ 대한불교위양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위산 스님

진로행탈 사비상/ 긴파승두 주일장
악비일변 한천굴/ 정득매화 향비향
백억건곤 장안리/ 입운등등 락만반
생사의 진로에서 벗어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니
긴히 마음머리를 잡아서 한바탕 집을 지어라.
만약에 찬 것이 한번 끝수에 사무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어찌 매화의 향기가 코에 가득함을 얻으리요
백억이나 되는 건곤의 장안속에서
입운등등 해서 오만 가지가 다 즐겁도다.



“자등명 법등명 하는 불자가 되자”

■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

부처님은 누구신가?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여 스스로 진리의 법신을 이루신 분이다. 또한 복덕과 지혜를 두루 갖추신 자성본불(自性本佛)이며 영원불멸하신 진리의 부처님이십니다.
역사적인 부처님은 인간으로서 여래를 이루어 묘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법신으로의 부처님은 만물의 사상은 묘법의 본성에서 여래를 성취하신 분입니다.
부처님 깨달은 진리에 귀의하며 스스로에 의지하는 자등명(自證明) 법등명(法證明)하는 불자가 됩시다.



“보리행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깨달아”

■ 대한불교대원종 종정대행 신흥 스님

별이 꽃에서 풀을 모으듯 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받아들여 어리석은 마음 탐내는 마음, 이것저것 얽혀 집착하고 고통 받는 현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보리심을 일으키고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들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묵묵히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찌 감히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하는 마음을 일으켜 나태함을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가장 슬퍼할 일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보리행을 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깨달음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행 통해 처처 부처 만나자”

■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종정 덕정 스님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만 중생의 광명과 가르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법부의 어리석음과 고해에서 벗어나도록 하였고, 그 모든 거룩함을 받들어 오늘 허공과 같은 마음속에는 항상 부처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항상 무명을 밝힌 생활과 수행을 가져서 곳곳에 계시는 부처님을 만날 것입니다.



“마음속에 극락 있다는 것 깨달아야”

■ (사)한국불교정토종 종정 월호 스님

무구무비무물(無口無鼻無目物)이
시래객만시수면(時來客歎時睡眠)하며
면후기행임언어(眠後起行任言語)하니
일락서산강하위(日落西山更何爲)하는가.



입도 없고, 콧구멍도 없고, 눈도 없는 그것이 때가 되면 밥 먹고, 때가 되면 잠자며, 자고나면 일어나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말하니, 서산에 해가 떨어지니 다시 무엇을 하는가?
우리 종도들은 즉심시불(即心是佛)이요 유심정토(唯心淨土)를 실현해 우리 모두의 마음이 곧 부처요 우리 마음속에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진리 찾겠습니다”

■ 대한불교대승종 종정 천광 스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지 2533년이 지났습니다. 너무나도 찬란한 5월에 두손 모아 발원하옵시다. 윤회의 고통 벗어나는 길은 부처님이 일러주신 대로 내 본성의 진면목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명의 고통에서 길을 버리고 헤매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가 마음에서 비롯됨을 깨달아 내 안에서 진리를 찾겠습니다. 일부러 복을 지으려고도 하지 말고 스스로 화를 짓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단단한 금강석처럼 진실된 이치만을 염원하며 진아 불성을 찾아 부처님 가르침 따라 정진하겠습니다. 참으로 즐거운 날입니다. 꽃이 웃고 새들이 노래하는 너무나 즐거운 날입니다.



“이기심 버리고 자아 회복하자”

■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해봉 스님

자유를 추구하는 현대에서 자기 정체성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극단적 이기심으로 인하여 나 자신은 물론이러니와 이 세계를 시련의 길로 접어들게 하였습니다.
이에 하루 빨리 자아회복을 이루어 일체 중생의 웃음소리가 집집마다 새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두두물물 경계 아님 깨달아라”

■ 대한불교심계종 종정 법수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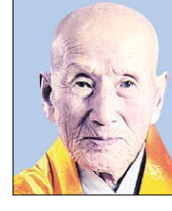
黃花翠竹非他物 明月清風不是塵(황화취죽비타물 명월청풍불시진)
頭頭盡是吾家物 信手拈來用得親(두두진시우가물 신수연래용득친)
국화꽃 대나무가 남의 것이 아니로되/ 달 밝음이랑 맑은 바람도 경계가 아닐세/
그 모두가 우리집 재물이여니/ 마음대로 집어다 쓰면서 살 일.
孤山山下好養身 米蕩柴多足四隣(고산산하호양신 미당차다족사린)
/ 無心野老機關少 家火從他乞與人(무심야로기관소 가화종타걸어인)
고산 밑에는 살기에 알맞은 곳이고/ 쓸은 싸고 땀 나무 많고 이웃도 좋아/ 무심한 이 늙은이 주책이 없어서/ 불씨까지 달라며 남에게까지 주네



“참되게 사는 길은 나눔과 기도”

■ 대한불교선각종 종정 영담 스님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온전한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중생이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염원하는 대자대비의 원력이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탐욕과 분노가 얼마나 부질없는 망상인가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사는 길은 남을 위해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비의 원리이며 가장 아름다운 덕이며,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며 자성을 찾는 길입니다.
이 아름답고 행복한 날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은 누리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번뇌 건너고 망상 마르도록 공부하자”

■ (사)한국미륵불교 종정 법련 스님

‘번뇌 없는 세계’, 오고 가고 오고 가고 긴 세월 그 몇 겁인가?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산도 푸른데 숲이 자라서 변화하였네, 세존은 말씀 하셨다. 제행이 무상이라고.
우리는 찾고 있네. 구원겁 전의 나는 어디 있는가? 이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생겼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처님은 이것을 일러주려 오셨네. 이 푸른 불꽃을 보았느냐? 이 힘이 얼마나 큰지 차고 뜨겁고, 아주 작고 아주 크고, 아주 빠르고
푹 푹! 천만겁 먼거리를 도출전도, 극락세계도 찰라 사이에 오가니 이 무서운 힘 번뇌의 강을 건너고 망상의 세계가 말라버린 이 고요한 적막! 다 같이 공부하여 성불합시다.



“영원한 생명 참나 찾아 환희롭길”

■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부처님은 오랜 겁전에 성불했습니다.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했습니다. 지금도 교화하고 계십니다. 본래 부처인 자신을 잊고 윤회의 파도에 빠져 아우성치는 중생들이 가여워서 이땅에 몸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와의 전쟁입니다. 경제의 주인공인 마음은 잊은 채 대상만 쫓고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삶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망으로부터 오는 악업은 멈춰야 합니다. 부처님은 오심도 없고 가심도 없으며 언제 어디에서나 계십니다. 부처님오신날은 바로 이 영원한 부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누구나 영원한 생명인 참나를 찾아 다함께 축복하고 환희롭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위신력으로 가호 충만하길”

■ 대한불교임제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지암 스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날을 맞아 연등불 밝혀 봉축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불자님 가정에 가호가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청천공벽력”
“평지가파도”

임제종 가풍

“스스로 청정한 것이 부처님 말씀”

■ 불교조계총상화불교 종정대행 총무원장 해인 스님

부처님오신날 자기 청정하자.
자기 청정한면 언제나 부처님오신날. 진리는 부처님 몸이 있지 않고 부처님께 설법을 하셨으니 진리는 말씀에 있지 않다.
부처님 오심은 진리를 행하는 선을 몸소 보이시고 우주 만법이 죄를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다.
내 조국은 세계요 내 종교는 선을 행하는 것이며 자기 청정하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자”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부처님께서는 마음가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짐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갖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연은 황폐화 되고,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각종 불미한 사건들로 서로간의 신뢰와 평화는 점점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을 서로에게 미루고 미움과 원망으로 헛된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리이타 동체대비 서원으로 서로를 위해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삼라만상 모두가 참된 진리의 묘법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중단 없는 정진으로 본래 청정 찾자”

■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향운 스님

중생들 마음속의 자등명과 법등명을 밝혀 주시기 위해 석가모니께서 환한하신 너무나 즐거운 날입니다.
물질은 유한하여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만 진정한 진리를 얻는 것이며, 곧 부처에 이르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보여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탐진치에 물든 나를 바로 보고 본래의 청정성을 찾으려 수행을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중단 없는 정진으로 평화롭게 서로의 신뢰를 확고하고 평화와 안정을 발원합니다.
부처께서 주신 해인의 등불로 찬란한 오월을 봉축합니다.



“이타 위한 등불 밝혀 자성불 깨닫자”

■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종정 운봉 스님

부처께서 오신 거룩한 날.
부처께서는 오늘 오신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가 부처이며,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포 나아가 세계인 모두가 부처인 것입니다. 내 안의 부처를 잊어 버리고 저 밖에서 찾다 보니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자성에는 부처님의 생명이 숨 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모든 중생이 부처임을 알고 밝고 청정한 마음으로 이타를 위한 등불을 밝혀 탐욕과 증오를 거두고 나누고 어루만집니다.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부처께서는 탄생한 그 순간부터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대광명 찾을 수 있는 여래심법 실천”

■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如是之法 佛祖密府(여시지법 불조밀부)
如今得之 宜能保護(여금득지 선능보호)
이와 같이 대각(大覺) 성불하신 부처님 심법을 따라 우리 중생들은 무명에서 벗어나 대광명을 찾을 수 있는 여래심법(如來心法)을 실천합시다. 또 그 가르침을 잊지 말고 잘 보호하고 호지(護持)합시다.



지금의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내일을 새로이 계획하며 내외 절제와 노력으로 현실을 이겨내고 부처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가호로써 앞날의 희망과 용기와 행복이 이룩되도록 모두 다함께 다시한번 새로이 출발 합시다.

“일체무상 깨달으면 부처님 보리라”

■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련 회장 송산 스님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삼비상
즉견여래
- <금강경> 사구계 중



존재하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인 것은 실체가 없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니라
만일 이와같은 줄 알면 곧 부처님 세계를 보리라.

“부처님 닮아가며 스스로 부처 찾자”

■ 대한불교법성종 종정 덕암 스님

부처께서 무명의 어둠을 밝히려 오셨습니까.
넘치는 욕망으로 번뇌가 쌓이고 쌓이면 불성은 사라지고 사악이 번성하여 갈등과 대립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고통은 불화와 대립으로 이어져 넘치는 번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부처님오신날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처님을 닮아가며 스스로 부처를 찾읍시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내 가족을 넘어 이웃과 나라와 세계의 안녕을 위해 기원합시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라와 교단 위해 개벽승군하자”

■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스님

富貴如將 智力求(부귀여장 지력구) / 天才年少 舍封侯(천재년소 함봉후) / 世人不解 青天意(세인불해 청천의) / 空使身心 半後愁(공사신심 반후수) / 天地公事 同力僧(천지공사 동력승) / 護佛四明 僧軍部(호불사명 승군부)



부귀를 만일 지혜로 구할 것 같으면/ 옛 성인들은 소년 때 제후를 봉했으니/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무시하고/ 부질없이 몸과 마음만 고달프게 하는구나/ 이 땅에 유익한 일 도법을 같이할 승려여/ 나라와 교단위해 개벽승군 봉축하시!

“지혜의 공함으로 참사람 되니...”

■ 현대불교조계종 종정 벽운 스님

空忍空忍(공인공인)
眞空妙藥(진공묘약)
虛明自照(허명자조)
無爲真人(무위진인)



참고 이겨내며 비위서 공함으로 돌아가니 참 지혜의 공함으로 삶의 묘약을 얻도다. 허허로이 밝아 스스로 비추나니 하여도 함이 없는 참사람이어라.

“칠자 행하면 부처와 다를 바 없어”

■ 대한불교선종 종정 효담 스님

戒持僧前人七字(계치승전인칠자)
人字七行僧七字(인자칠행승칠자)
生前死後福樂期(생전사후불락기)
心身在善慈佛陀(신심재선자불타)



계를 가져 승이 되려면 사람인자 칠자부터 행하라. 인칠자 행 후에 승칠자를 행하여서 생전사후에 복과락을 바라려니
마음과 몸이 선한 가운데 부처와 다를 바 없더라.